이긴자 일대기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91회〉

5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로 화합의 뜻도 있다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벗어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⑤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지난호에 이어서)

서른 즈음에 결혼하여 남녀 쌍둥이를 낳아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대외적인 활동은 접고 꾸준히 공부해 오던 법률공부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청년기에 법학을 전공한 경력과 일치합니다. 정도령도 육법전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레이건도 1980년 11월 14일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되었으며 재선에 또 성공하여 8년간 집권하였습니다. 레이건의 아버지는 한국인들과 비슷한 기질을 지닌 화끈하고 성질 급한 아일랜드(Irish)인의 후예로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교도소를 방문해 복역 죄수들과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나눠 읽는 등 종교 교육을 했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점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옥스퍼드대학교시절에 '홀리'클럽을 조직하여 학생 종교 운동을 일으켜 빈민, 병자, 죄수들을 방문하여 봉사와 전도를 하던 일과 일치합니다.

젊은 레이건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강한 종교적 확신을 얻고 성장하였으며 기독교계의 유레카 대학에 진학하여 경제사회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교내 식당에서 접시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1937년 할리우드 한 영화기획사에 발탁되어 52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주연배우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레이건은 노조간부로 지내면서 할리우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공산주의의 실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공산주의자와 대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⑥ 피를 흘리지 않고 공산주의 해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을 모신 정도령은 공산주의 몰락에 앞장설 역사적인 배역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옐친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등을 점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기부터 주장하여 자국의 최고 지도자로 끌어올리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은밀히 역사하였지만, 마귀도 신(神)인지라 1981년 3월 30일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하여 암살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레이건은 소생하게 되었고 개흉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이성적인 차가운 피를 수혈받은 레이건은 올바른 사람을 분별하는 혜안과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감세(減稅)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각국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과다한 세금을 낮추면 국민이 번 돈이 상품구매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어 민간기업의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사회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히 비대한 국가에서 낭비 없는 알뜰한 국가로 체질개선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대전 후 자유진영에서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형태로 닮아가고 있었으며 급기야 기업 스스로의 창의력을 잃고 국가의 원조에 기대는 나약한 풍조를 이루어 경제 불황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에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어 영국 경제를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1984년 12월에 영국을 방문하여 대처 총리를 만났던 이유 중 하나가 소련과 같이 국영기업이 많던 영국이 어떻게 경제재건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국 경제재건은 소련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5대 공약 가운데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라고 구세진인 정도령(正道令)께서 매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1981년 초창기부터 수없이 공언해왔었고 마침내 1990년대에 소련을 위시하여 동구권 공산국가가 해체됨으로 구세주의 전지전능성과 약속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산주의를 없애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인즉 공산주의를 그대로 두면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나서 지구 땅에 인간이 거의 멸절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구세주가 인간이 다 죽고 없는데 구원하겠다고 하면 말이 아니 되는 고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먼저 걸림돌이 되는 유물사관의 이념을 - 당시 지구인의 3분지 2가 넘는 30억 명의 공산주의자의 마음속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서 - 제거하여 하루아침에 동시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피를 흘리지 않고 인류평화를 위해 공산주의를 없앤 것입니다.

⑦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

우리 민족은 일찍이 무궁화를 사랑하였던 고로 무궁화민족, 무궁화나라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신라, 고려는 외국에 공문을 보낼 때 신라, 고려는 국명(國名)대신 무궁화 마을(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부락(근역槿域)이라고 써 보냈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군경 계급장에 무궁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또 이조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어사화를 달아주는데 대나무 대롱 끝에 무궁화를 달아서 그 모자 양쪽에 꽂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껏 그토록 온 민족이 사랑하는 무궁화 꽃을 나라의 꽃으로 제정이 안 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무궁화를 사랑하면서도 무궁화를 나라의 꽃으로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궁화라는 꽃 이름 자체가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 중에서 가장 오래 피는 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무궁화를 그토록 사랑했느냐 하면 이 민족 가운데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상으로 무궁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궁화는 대부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놓으면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세계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면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곧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자세히 보면 꽃잎이 다섯입니다. 꽃술도 다섯이요 씨방도 다섯입니다. 5숫자로 되어있는데 5는 영생을 상징하며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도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구원을 얻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5수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고로 정도령(正道令)이라는 그 바를 정(正)자의 획수가 곧 5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도령이 구세주요, 구세주가 바로 정도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正)은 올바른 진리를 뜻하며 도(道)는 길이요 령(令)은 생명이 깃든 말씀을 뜻함으로 정도령(正道令)이라는 호칭 속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8년도에 세계 올림픽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렸었습니다. 올림픽 깃발 안에 동그라미가 다섯 개 있습니다. 5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도 되지마는 화합의 뜻도 있습니다. 주역에도 조동오위(曹洞五位)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서를 풀이하는 사람이 그 조(曹)자는 무리 조(曺)의 성을 딴 글자라고 하면서 조씨 집안에서 구세주 5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는 등 레아를 통하여 4명의 아들이 나온 후에, 라헬이 몸종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여 남편 되는 야곱에게 간청하여 다섯 번째 아들 '단(檀, 단군)'이 빌하를 통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단에게 심판권을 준 것이 창세기서 49장 16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2아들 중에 5번째 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긴 것을 보아서도 5숫자는 구원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88올림픽 대회를 살펴보면 9월 17일에 시작하여 5일째 되는 날 첫 금메달(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4KG급 김영남)이 9월 21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서 5일째 되는 날 9월 25일에 두 번째 금메달(유도 엑스타라 라이트급 김재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금메달(유도 하프 라이트급 이경근)이 9월 26일에 나온 것은 9월 17일에서 10일째 되는 날로써 '10'은 5에다가 2를 곱한 수로 마찬가지로 5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막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세 번째 금메달이 나온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네 번째 금메달(한국 여자 핸드볼)이 나온 것은 9월 25일에서 5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9월 30일에 금메달(양궁 여자 개인전 김수녕, 탁구 여자복식 양영자 현정화조)이 두 개 나왔는데, 9월 30일은 9월 26일에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같이 금메달마다 5숫자의 의미가 안 붙은 날이 없습니다.

10월 1일에 금메달(양궁 남자 단체전, 양궁 여자 단체전, 탁구 남자단식 유남규, 레슬링 자유형 한명우)이 4개 나왔습니다. 10월 1일은 9월 17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인데, '15'는 3에다가 5를 곱한 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었다'하는 의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10월 1일'의 10월은 10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이며 1일의 1이라는 것은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금메달이 4(땅의 완전수)개 나온 것은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개막일로부터 16일째가 되는 대회 마지막 날 10월 2일에 금메달(복싱 플라이급 김광선, 복싱 라이트 미들급 박시헌)이 2개가 나왔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마귀한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6수가 마귀의 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9수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3수와 아담의 3수와 하와의 3수를 합하면 9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일째에 금메달이 2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의 두 분 하나님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6수가 과거에는 마귀의 수(數)였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마귀의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의 금메달은 9월 21일 첫 번째로 금메달 1개, 9월 25일 두 번째로 금메달 1개, 9월 26일 세 번째로 금메달 1개, 9월 29일 네 번째로 금메달 1개, 9월 30일 다섯 번째로 금메달 2개, 10월 1일 여섯 번째로 금메달 4개, 10월 2일 일곱 번째로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총 금메달 12개가 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4등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수라는 것은 3×4=12인데 3수는 하늘의 완전수요 4수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2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10개의 은메달과 11개의 동메달을 따서 도합 메달수가 33개가 되었습니다.

33수라는 것은 '태초의 하나님이 완성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선언을 했을 때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이 메달을 33개를 따서 4등을 했다는 것은 '완성자가 한국땅에서 나왔다'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88올림픽 대회를 마치고는 전 세계에 화해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화목해지며 하나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뒤집어져서 전부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8〉

(지난호에 이어서)

온 우주의 풀과 나무부터 각종 동물과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들에게는 죽음(소멸)을 두려워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 속담에는 "알아야 면장(面長)을 한다", 하는데 이 뜻은 알아야 죽음을 피한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알아야 면장(免狀)을 한다"는 뜻이다 즉 죽지 않으려면 배우라는 의미다.

또 한가지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사람이 어디를 가자고 할 때 관심이 없을 때 하는 말이 "별 볼일 없으면 안가!" 하고 거절하는 것은, 별 보는 일보다 현재 안간다는 사람은 현재의 관심에 집중되어 별을 보는 일이 큰 관심이 아니면 흥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별 볼일은 미륵부처가 별이라는 뜻으로 오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말이다. 그것을 석가모니는 3000년 전에 알고 불경에 기록으로 남겼다.

미륵부처님을 증거하는 경전은 역시 미륵경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도 미륵이 오실 때를 말씀하신 미륵내시경(彌勒來時經)을 보도록 하지요.

[예]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來時經)

彌勒成道樹下坐 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미륵도수하좌 용사월팔일명성출시득불도

미륵부처님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 불도를 얻는다.

해설 : 여기서도 미륵부처님이 '밝은 별(明星)'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의미 있게 알리고 있으며, 혹 어떤 분들은 밝은 별이 어째 사람의 이름이냐고 하는데,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금성과 효성을 말하는데 그런 샛별을 받는다면 별이 얼마나 큽니까? 구세주인 미륵불이 별에 깔려 죽으니 그런 뜻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이런 밝은 별이라는 뜻의 명성(明星)은 매일 밤 뜨고 지는 별이 아니기에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말한 석존 사후 3007년에 미륵부처가 오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밝은 별은 바로 매일 뜨고 지는 별들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는지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존재가 미륵부처님이라면 이런 세상을 우리는 극락(極樂)세계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天國)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죽음과 고통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람이 죽고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 하나님이 친히 주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8〉

산의 숲과 나무들이 허리를 굽히고 미륵부처님을 향해 절하다 – 7

지난 15편에서 미륵이 지신(地神)으로부터 〈성불선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불선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날이 1980년 10월 15일인 것이다.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그 날 이 사람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갔던 것이다. 지게를 지고 산에 가니까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였던 것이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거듭하는데 이 사람은 깜짝 놀랐던 것이다.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보았고, 또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무가 춤을 추고, 풀들이 춤을 추는데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풀들을 가까이 가서 보았던 것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뽑혀 있었던 것이다. 뽑혀 있는데 땅속에다 뿌리를 박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만물이 기뻐 날뛰며 춤추는 기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초창기에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는 날 산에 가니까 나무와 풀이 절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을 했던 것이다." - 『하나님(미륵부처님)의 간증 발췌』

나무와 풀이 절하고 또 춤추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간증을 석가모니는 화엄경에 증거하였다.

[예]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대방광불화엄경권제59권)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이세간품제38-7)

菩薩摩訶薩 坐道場時
보살마하살 좌도량시
一切世界 草木叢林 諸無情物
일체세계 초목총림 제무정물
皆曲身低影 歸向道場 是爲第四未曾有事
개곡신저영 귀향도장 시위제사미증유사

보살마하살(미륵부처님)이 도량에 앉을 때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량으로 향하나니, 이것이 넷째 처음 있는 일이니라.

해설 : 풀과 나무도 하나님(미륵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지금도 기독교 불교 마찬가지로 자기 뱃속 채우고 욕심 채우기 위해 경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서 신도들까지 아비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하나님과 석가모니의 꾸짖음은 잊었나 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권한다.* 明鍾